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반복적 행위에 대한 사유와
언캐니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s of Repetition Behavior and
'Uncanny'
-Based on artist's own Work-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미 술 학 과
문 보 경

회귀적 행위에 대한 사유와
언캐니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지 도 교 수 하 원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미 술 학 과
문 보 경

문보경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작품론)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하 원 인

심사위원 임 영 재 인

심사위원 김 인 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8년 12월

국문초록

회귀적 행위에 대한 조형적 사유와 언캐니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문보경
지도교수 하 원

본 논문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경험에 관한 감정의 기록을 조형화한 작품들에 관한 작품론이다.

모든 것이 무(無)에서 무(無)로 돌아가는 그 시간과 시간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를 살아간다. 그 비워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두드림과 굵기의 유사하게 반복되는 나의 행위는 매번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경험으로 기록된다.

‘작업’이라는, 작품을 제작하는 반복적이고 물리적인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끌어와 나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억이 현재의 시점에 맞추어 조정해 보려 하지만 가려던 곳에 이르지 못한 행위로만 남아있다.

이런 행위는 본능적인 반복 강박 즉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려는 강박이며 내면의 반복 강박이나 왜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캐니(uncanny) 하다고 감지된다. 언캐니는 프로이드의 논문 『운하임리히(unheimlich)』를 영어로 번역한 말로 친숙하면서도 어쩐지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본인은 언캐니를 통해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이 가지는 언캐니적 성향과 조형적 특성은

첫째. 인체의 한 부분이나 장기 등을 묘사한 듯한 이미지의 왜곡에 따른 심리상태

둘째. 재료에서 나타난 반복강박

셋째. 지속과 생명으로 본 공간의 재해석으로 요약하여 본다.

언캐니한 특성을 이 두 가지의 조형적 전략을 통해 보고자 한다.

강박적일 정도로 반복적인 행위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뚜렷이 상기시켜 그에 얽혀 있는 억압과도 같은 감정들을 불러 일으킨다. 억압들은 '무의식'에 쌓이며 끝없이 반복적으로 회귀하여 현실로 나타난다.

억압된 것의 회귀란 인간 존재에 대해 나아가 삶 전반에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인은 과거 실패의 경험을 회귀를 통해 억압되어 왔던 감정을 '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목 차 >

국문초록

제 1 장 서 론

1. 서론	1
-------------	---

제 2 장 본 론

1) 이미지의 왜곡에 따른 심리상태와 언캐니(uncanny)의 이론적 고찰.....	1
2) 재료에서 나타난 반복강박	3
3) 재료의 선택	5
4) 지속과 생명으로 본 공간의 재해석	6

제 3 장 결론

3. 결론	7
-------------	---

작품목록	9
참고자료	10
참고문헌	11
ABSTRACT	12

1. 서론

본인은 ‘작업’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반복적이고 물리적인 과정 속에 과거의 경험을 끌어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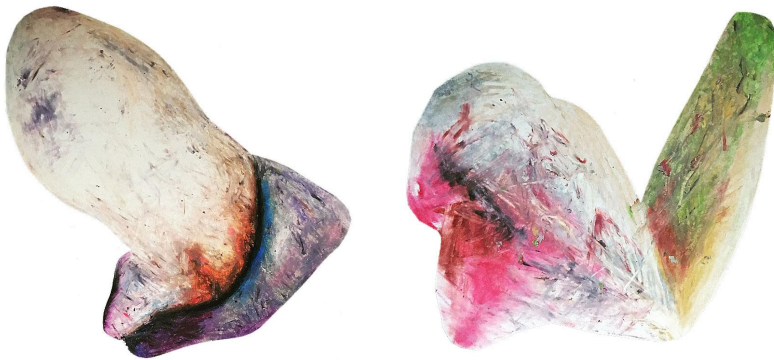
본인의 억압된 감정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반복적인 행위와 언캐니(uncanny)¹⁾한 조형성으로 표현되었음을 살피고 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의 이미지와 표현기법 그리고 재료를 분석하여 반복 강박적 행위가 만들어낸 조형성을 살피고자 한다.

2. 본론

1) 이미지의 왜곡과 언캐니(uncanny)의 이론적 고찰

본인은 작품에서 다육식물과 인체의 형태를 결합하였다. 다육식물은 잎꽃이나 탈피, 줄기, 컷팅을 통해 번식을 한다. 껍질을 찢고 나오는 탈피 과정으로 개체를 늘리는 리튬스의 생김새는 마치 자궁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스스로 번식하기 위해 나오는 모습처럼 보인다.(도판1) (도판2)



(도판1)리튬스 I (좌)

(도판2)리튬스 II (우)

1) 언캐니(uncanny) : 데자부,도플갱어와 같이 기이하게 느껴지는 심리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

언캐니, 즉 기이한 느낌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셸링으로부터 시작되어 프리드리히 니체, 에른스트 옌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로 이어졌다. 언캐니는 인지적 불확실성의 산물로서, 데자부, 두 번째 자아(alter ego), 심령(ghost)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확실한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는 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감춰지거나 억압된 욕망의 무의식적 발현, 금기시 되는 소망에 대한 표출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같은 유아기적 욕구들은 사회적 규범과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초자아(super ego)에 의해 억눌렀다가 반복적 강박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기이한 느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N지식백과, (두산백과)

작업 과정 속에 스스로를 찢고 나오는 탈피의 모습에서 섬뜩함이나 거북스러운 감정으로 느끼게 의도하였다. 왜곡된 신체 형상이 낯설게 느껴졌을 때 언캐니함을 느끼게 된다. 언캐니는 친밀한 대상으로부터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심리적 공포를 말한다

‘언캐니’는 프로이트의 유명한 논문 「운하임리히(unheimlich)」를 영어로 번역한 말이다. 어근이 되는 heim은 바로 ‘집’ 또는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여기에 접두어 un이 붙게 되면 불편함, 불안함 등의 뜻이 된다.²⁾

사전적 의미는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낯선, 이상한, 기괴한,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언캐니’를 억압에 의해 낯선 것이 되어 버렸으나, 원래는 ‘익숙했던 현상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한다.³⁾

프로이트는 ‘unheimlich’라는 단어에도 ‘집’이나 ‘편안함’의 뜻이 사전에 등재돼 있다고 지적한다. ‘unheimlich’는 친숙하면서도 어쩐지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밤중에 집에 홀로 편안하게 있는데 창 밖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무서운 감정이 드는 순간이 바로 ‘unheimlich’가 일어나는 때다. 종종 ‘낯선 두려움(uncanny)’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이 개념은 독일어 대신 언캐니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는 있다. 이 미묘한 말을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⁴⁾

다육식물인 리톱스에 신체를 접목시킨 언캐니함에서 식물의 이미지를 버리고 신체에 좀 더 집중한 작업이 종지와 동판의 인체 드로잉이다.(도판3) (도판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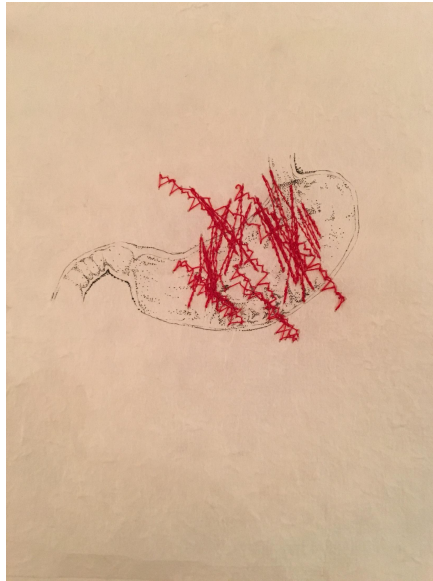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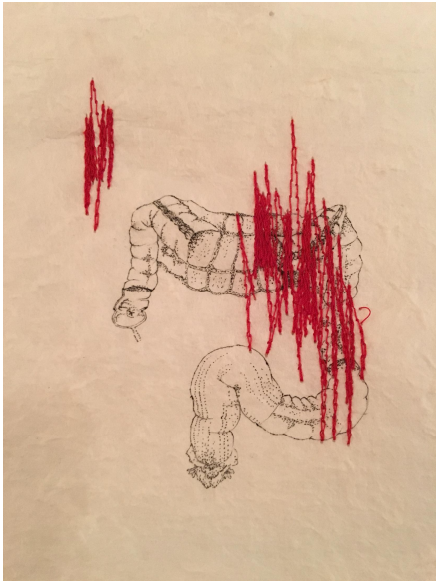


(도판3)리톱스Ⅲ(좌)
(도판4)리톱스Ⅳ(우)

2) 강신주 이상용, 『씨네샹떼』, 믿음사, 2015 p859
3) 언캐니, N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4) 강신주 이상용, 『씨네샹떼』, 믿음사, 2015 p859

2) 재료에서 나타난 반복강박

<인간실격 I>와 <인간실격 II> 같은 드로잉에서는 종이에 인체의 한 부분을 점묘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도판5) (도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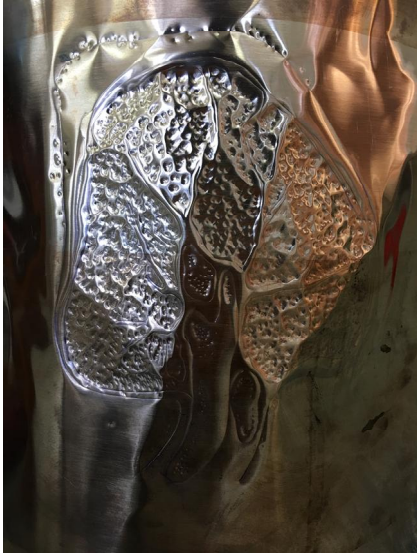


(도판5)인간실격 I (좌)

(도판6)인간실격 II (우)

마치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어 물감을 새기는 문신처럼 펜으로 종이에 물들여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만든다. 점묘로 표현된 절단된 사지나 몸 속 기관들 위에 붉은실의 박음질로 개인의 상처를 조형화 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전 과정은 본인이 대체 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경험한 상처의 표현이다. 카스트제도, 인종차별, 민족차별 등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폐지되었을 뿐이지 돈-직위 등에 따른 차별 요소는 남아있어 엄연히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실격III>와 <인간실격IV> 같은 동판 작업 역시 이러한 생각과 진시황릉의 병마용에서 받은 단상에서 발전된 것이다. (도판7) (도판8)



(도판7)인간실격Ⅲ(좌)

(도판8)인간실격Ⅳ(우)

맨 앞에 서 있는 갑옷도 무기도 없는 화살받이 병사들은 앞으로 나아가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뒤로 도망쳐도 뒤에 오는 병사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 그 계급적 위치가 본인이 경험한 비정규직의 반복적인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한 경험이 매번 똑같은 것은 아니다. 유사성을 띤 상처와 실패는 동판에서도 제각각 다른 상처의 흔적으로 표현된다. (도판9)



(도판9)행위의 사유

반복적인 두드림이지만 그 날의 경험에 따라 두드림의 강도는 달라진다. 움푹 패이거나 구멍이 뚫릴 때까지의 두드림에서 종이보다 강렬함이 느껴진다. 동판

은 비명과도 같은 울림을 동반하여 조용히 붓질만 하며 숨소리만 날 것 같은 작업실 옆 이웃들에게도 그로테스크(grotesque)⁵⁾함을 남긴다. 허나 그 누구도 항의를 한다거나 궁금해 하며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동판이 크게 울릴 수록 더욱 침묵하는 것은 그들이기에 나 역시 그로테스크함을 느낀다.

3) 재료의 선택

종이는 스케치나 드로잉의 용도로도 쉽게 쓰이고, 종이비행기가 되어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다양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미적 대상이 되는 물성보다 체험에 가까운 비물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판은 종이와는 다르게 단단하고 강하지만 동판 자체의 색이 주는 이미지가 자연물을 이미지화 했을때 거부감이 없는 재료라 생각하여 선택하였다. 사용된 동판의 두께는 종이의 두께와 비슷하여 혼자서도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두드림으로 새겨진 이미지는 깊은 상처의 조형화로 표현된다.

종이에서 동판으로의 과정이 물질의 강함을 찾은 결과였다면, 이후 종이 흑연 작업은 물성의 방향보다 강박적일 정도로 반복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

흑연으로 긁기를 반복한다. 반복적인 긁기 행위는 신체의 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동판의 두드림과 마찬가지로 그 날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긁기는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한다. (도판10)



(도판10) 종이에 흑연

5) 그로테스크(grotesque) : 괴상하고 기이한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한다. 즉 현실세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나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표현되는 용어이다. 문학과 예술에서는 낯선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N지식백과, (구인환,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용어사전, 2006 (썬원문화사))

유사하게 반복되는 행위는 강박적일 정도로 반복적이고 본능적으로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험을 다시 재구성하여 보려 하지만 이 또한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험의 기록이 된다.

4) 지속과 생명으로 본 공간의 재해석

「시간, 흐름, 흔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록이자 동시에 그것의 소멸에 관한 것이고,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⁶⁾ 라고 한 작가의 말처럼 본인에게 시간은 전과 별다른 것 없는 그렇다고 무의미하지 않으며 서서히 사라지는 존재이다. 시간, 사물, 기억이 소멸되지만 기록으로써 새롭게 생성 되기도 한다. 시간은 행위를 동반한다.⁷⁾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행위일 것이다. 두드림과 긋기의 행위만 남은 작품은 삶과 작업, 그 중간 지점의 흔적인지도 모른다.

지나간 과거의 의식적 삶은 아무것도 잃어버림이 없이 현재 상태 속에 녹아들어 함께 현재를 구성한다.⁸⁾ 반복적인 두드림이나 긋기의 행위는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두드림은 본인 그날들의 경험과 감정에 의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데 이것으로 약한 고통의 부위는 알 수 있고 강한 고통은 신체 전체의 울림으로 몸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센 두드림과 긋기는 재료에 상처를 주어 구멍이 난다. 이 구멍은 다시 공간이 되어 현재의 시간과 현재라고 불리울 앞으로의 시간을 이어준다. 두드림과 긋기는 마치 운동에서처럼 고통의 강도에 따라 근육의 성장과도 같다.

시간은 행위를 동반한다.⁹⁾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일 것이다.

지속이란 우선적으로 의식 상태들의 존재 방식을 일컫는다. 그것은 또한 의식이 느끼는 시간의 모습이기도 하다.¹⁰⁾ 본인의 작업에 반복 강박 행위는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죽음에 다다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삶의 불균형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균형이 잘 잡힌 정신들, 즉 삶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인간들은 상황에 호소하는 기억들을 정확히 불러내거나 현 상황의 윤곽들을 정확히 따르기에 충분히 유연한 기억, 모든 호출에 저항하기에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

6) 안규철,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samuso, P73

7) ibid., p74

8) 황수영, 『베르그손』, 이룸, 2003, p44

9) ibid., p74

10) ibid., p32

고통의 양적 팽창의 느낌은 외적 자극에 따른 신체의 반응 부위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다.¹¹⁾

“이때까지 평범하고 비천하여 복종적인 시민들이 어느 날 아침의 지도자가 된 듯이 깨어난다.....정직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결함 있는 지도자의 성격인 잔인한 인격이 나타난다(DS,296~297)¹²⁾

본인의 작업이 어찌면 그저 심연의 속성 중 하나의 잔인성이 드러난 것 뿐인지도 모른다. 허나 이것은 잔인성이라기보다 억압된 것의 회귀를 통해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도전하고 싶은 본인의 의지라고 말하려 한다.

두드림과 굿기의 반복적인 행위는 과거의 경험을 회귀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여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본인의 삶 전반에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는 일이다.

반복적인 굿기나 두드림의 행위가 감정이 산화된 후 그저 사소하고 진부한 일상이 지속되는 황량하고 암담한 공간을 혼자서 마주하는 몸부림이었다. 본인에게 작업이란 처해진 상황에 마주하는 과정이자 반복되는 행위의 사유이며 그러한 과정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지켜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3. 결론

일상에서 오는 언캐니함은 본인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 어찌면 본인의 작업 행위 자체를 정당히 여기기 위한 변명거리일 수도 있다.

작업이 매일같이 무언가를 창작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의 작업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재능 부족에서 오는 슬럼프의 반복 행위인 것은 아닌지 모른다.

작업에 대한 고민으로 그것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 스스로를 학대하듯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매일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그 행위만으로 위안을 얻는다. 반복에 의해 의미는 희미해져 가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의미가 생성되기도 한다.

두드림과 굿기 행위 사이의 침묵과 인내의 시간에서 삶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그러한 행위의 기록을 통해 일상의 사소한 시간처럼 편안함과 안락함을 꿈꾼다.

운동으로 신체의 고통을 주어 근육을 키우듯 두드림과 굿기의 반복행위가 상처로 남아 있지 않고 앞으로의 새로운 조건들에 본인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11) 황수영, 『베르그손』, 이룸, 2003, p37

12) ibid., p237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작품목록

- <작품1> 리튽스 I , 2015, Drawing on paper, 20×18cm
- <작품2> 리튽스 II , 2015, Drawing on paper, 22×20cm
- <작품3> 리튽스III, 2015, 동판, 6.5×5cm
- <작품4> 리튽스IV, 2015, 동판, 4×4cm, 3×4cm, 2×3.2cm 1.5×1.5cm
- <작품5> 인간실격 I , 2016, 한지에 드로잉, 18×18cm,
- <작품6> 인간실격 II , 2016, 한지에 드로잉, 18×18cm,
- <작품7> 인간실격III, 2016, 동판, 90×120cm
- <작품8> 인간실격IV, 2016, 동판, 90×72cm
- <작품9> 행위의 사유, 2016, 동판, Installation
- <작품10> 인간실격V, 종이에 흑연 , 2016

참고자료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 청구전 전경

참고문헌

단행본

황수영, 『베르그손』, 이룸

헬 포스터, 『강박적 아름다움』,아트북스

강신주 이상용, 『씨네샹떼』, 믿음사, 2015

안규철,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samuso

W.듀란트 , 『철학이야기』, 배재서관

히라켄야, 『白』, 안그라픽스

이지은, 『감각의 미술관』, 이봄

우정아, 『남겨진자들을 위한 미술』, 휴머니스트

전영백, 『코끼리의 방』, 두성북스

인터넷 사이트

언캐니(uncanny), N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그로테스트(grotesque), N지식백과, (구인환,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용어사전, 2006 (주)신원문화사)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s of Repetition Behavior and 'Uncanny' -Based on artist's own Work-

Moon,bo-gyeong
Dep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 Ha,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artworks that materialized the records of feelings based on my past experience in time and space.

We live between the times and spaces, where the void returns to the void. My action that repeats strokes and line-drawing similarly on the empty time and space never reached the destination and archived as the accumulated experience.

The works of art, that is, the repeated physical process of making pieces of art invite the memories from the past, and I relive these memories anew, by which I try to adjust the memory to the current point of the view. However, I am never able to reach this destination, and they remain as the attempts that failed.

Such an act is an instinctive obsession, an obsession with which I try to return to the previous status. The things that remind me of the repetition obsession, bias, or many other things inside me are felt uncanny. Uncanny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word 『unheimlich』 in the articles by Freud, describing something unfamiliar, stirring the dreadful feeling in your mind.

I inten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shape-related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in my artworks through the concept of 'uncanny.'

The uncanny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in their forms are, respectively;

First, the mental state shown via the distortion of the images which seemingly depict a body part or an organ;

Second, the repetition obsession shown in the material;

Thir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space through persistence and life.

And, I intend to view the uncanny characteristics through these two modelling strategies.

The obsessive repetitions stir up the memories of the past event so vividly, triggering the emotions that are rather suppressive and entangled with such events. The suppression is accumulated in the 'subconsciousness' and materializes in reality by regressing endlessly.

This is because, in the end, the regression of the suppressed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life in general.

With this, I hope to use the suppressed emotions through the regression to the experience of failures in the past, by means of artworks, to provide the foundation to identify the future direction of my life.